

산자부, 2004년 R&D 4000억원 지원

과기부 3300억원에 정통부 2500억원 ... 차세대 성장동력 적극 투입

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, 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2004년 한해 동안 연구개발(R&D)에 모두 1조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다.

오명 과기부 장관, 이희범 산자부 장관, 진대제 정통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은 1월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의 <경제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민·관 정책간담회>를 통해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 방향을 밝혔다.

3개 부처의 2004년 R&D 투자규모는 산자부 4000억원, 과기부 3300억원, 정통부 2500억원 등 약 9800억원이다.

정부는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<차세대 성장동력특별위원회>를 설치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.

아울러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관련, 중장기적으로 핵심연구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단기적으로는 산업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.

3개 부처는 간담회에 앞서 경제계로부터 기술혁신 체제, R&D, 기술인력 양성, 세제지원 등 분야별로 2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·검토한 결과, 대부분을 정책에 반영키로 결정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1/27>